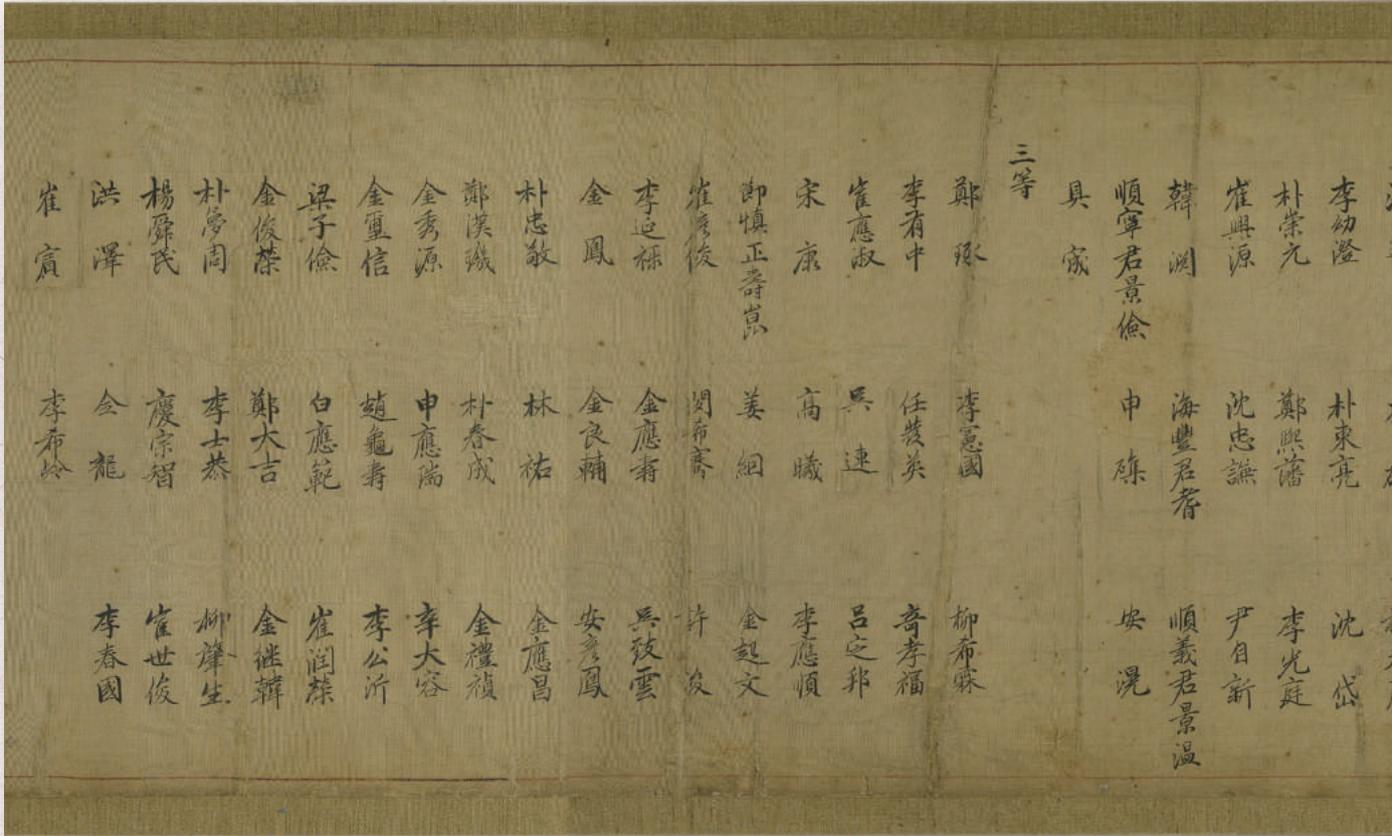


7 1604年吳連扈聖功臣教書



扈聖功臣教書は、壬辰倭乱（文禄慶長の役）の時、国王の宣祖に義州まで扈從した86名の功臣に対し、1604年に与えられたものである。現在知られる功臣教書は9件（文臣8件、医官1件）で、うち6件が宝物、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吳連は宮中の馬を管理する司僕寺の雜職である理馬で、この職にあった者がもらった功臣教書は、これ以外に知られていない。内容は、「爾は下隸を以て、尚お君に後れず、撫軍の行に扈するに速び、尤も負轡の績を著す、千里を跋涉し、備さに險艱を嘗め、終始一心、僕御を周旋す」（爾以下隸，尚不後君，速扈撫軍之行，尤著負轡之績，跋涉千里，備嘗險艱，終始一心，周旋僕御。）と、吳連が低い身分にもかかわらず、忠誠を尽くしたことを讃えたもので、吳連はこれによって三等功臣、石城君に封じられ、樂安吳氏石城君派の始祖となった。なおこの教書は申之悌『梧峯先生文集』卷七に「教吳連書」と題して見える。

版種	卷子本
発行	1604
形態	一軸；41 × 469cm
請求記号	河合 R76
登録番号	200048

教

忠勤貞亮扈聖功臣振威將軍行忠佐衛副司
果吳連書

王若曰尊君親上之心無間於貴賤報勞酬功之典
寧別於重輕茲稽彛章用示異數嚮者東夷
桀鷲竊我家邦西馮蒼黃越在草莽大小州
縣皆瓦解而土崩中外臣民多默奔而為寇
甬以下隸尚不後君逮扈軍之行尤著負職
之績跋涉千里備嘗險難然始一心周旋傑御
蓋乃良能之得於天賦所以貞亮之著於時危
在士夫猶鮮能況早納之尚甬奉天定難之騷
雖不擬施蒲城後亡之勞寧無可紀雖策勳
為扈聖功臣三等圖形垂後起一階爵其父母
妻子亦起一階無子則甥姪女婿加階嫡長世襲
不失其祿宥及永世仍賜伴倘四人奴婢七口丘史二名
田六十結銀子五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至可頌
也於歲垂名鍾鼎錫冊恩榮守誓山河保予寵
命故茲教示想宜知悉

一等

李恒福 鄭崇壽

二等

信城君爾 定遠君厚 李元翼

尹斗壽 沈友謙 李好閔

尹根壽 柳成龍 金應南

李山甫 柳根 李忠元

李國 柳永慶

호성공신(扈聖功臣)은 선조(宣祖)가 임진왜란 때 자신을 의주(義州)까지 호종하는 공(功)을 세운 86명에게 1604년 내린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공신교서는 모두 9개인데, 그 중 6개가 보물이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기존에 알려진 교서는 문신(文臣) 8개, 의관(醫官) 1개인데 사복시(司僕寺)에서 궁중의 말을 관리하던 잡직(雜職)인 ‘이마(理馬)’가 받은 공신교서로는 가와이문고의 「오연호성공신교서」가 유일하다. 「오연호성공신교서」는 신지제(申之悌)가 작성하였다. 호종공신교서에서는 오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을 존경하고 윗사람을 친근히 대하는 마음은 귀천에 차이가 없으니, 노고에 보답하고 공로에 답하는 은전에 어찌 경중을 구별하겠는가? 이에 법도에 따라 특별한 예우를 보이노라.....너는 하례(下隸)로서 임금을 뒤로하지 않고 어가와 세자의 출정에 말고삐를 짊어지는 공을 이루었고 험난한 일을 두루 겪으면서도 시종일관 온 마음으로 마부의 역할을 다 하였다.” 교서에는 오연이 낮은 신분임에도 충성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이후 오연은 석성군(石城君)에 봉해져 낙안(樂安) 오씨(吳氏) 석성군파의 시조가 되었다.

(朴英敏)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몽진할 때 자신의 말고삐를 잡은 마부에게 내린 보물급 공신교서(功臣敎書)가 일본에서 처음 발견됐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센터장 정우봉 국문학과 교수)는 지난달 18~24일 일본 교토대 부속도서관 서고를 조사해 마부 오연(吳連)에게 내린 호성공신(扈聖功臣)교서를 비롯한 유물과 인쇄본이 극히 적은 경오자(庚午字·안평대군의 글씨로 주조한 금속활자) 간행 서적 등 귀중 고문헌 약 500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호성공신은 선조가 자신을 의주까지 호종하는 공을 세운 86명에게 1604년 내린 것이다. 공신교서는 국내에 9개가 남아 있는데, 그중 6개가 보물로 지정돼 있다. 기존 교서는 문신(8개)과 의관(1개)의 것뿐이어서 '이마(理馬, 사복시·司僕寺에서 궁중의 말을 관리하던 잡직)'가 받은 공신교서가 발견된 것은 '오연교서'가 처음이다.

이번에 발견된 교서는 "조정 안팎의 신하와 백성들이 대부분 짐승이 달아나듯 새가 숨어버리듯 하였는데, 너는 하례(下隸·낮은 신분)로서 임금을 뒤로 하지 않고 어가와 세자의 출정에 말고삐를 짊어지는 공을 이루었고"라며 오연이 낮은 신분임에도 충성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오연은 석성군(石城君)에 봉해졌다. '용사호종록(龍蛇扈從錄)'은 그가 "부여(扶餘)의 정병(正兵)으로서 어가를 따랐다"고 기록했다. 박영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정병은 정규군으로, 오연은 양민 출신으로 군대에 갔다가 선조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선조의 공신 책봉은 형평성 면에서 오늘날까지도 비판을 받는다. 전투에서 목숨 바쳐 싸운 장수 등에게 내린 '선무(宣武)공신'이 18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주요 장수와 의병장이 제외된 탓이다. 반면 선조는 '호성공신'을 대규모로 책봉해 자신을 보좌한 이들은 마부까지 신분고하를 가리지 않고 챙겼다. 그러나 당대 사신(史臣)이 호성공신을 "미천한 복레(僕隸·종)들이 20여 명이나 됐다"고 비판하며 이마를 비롯한 하층민의 책봉에 마뜩잖아 한 시각은 신분 차별적이라는 평가다.

'비운의 활자' 경오자로 인쇄된 '역대병요(歷代兵要)' 유일본도 확인됐다. 당대 명필이었던 안평대군의 서체를 자본(字本)으로 만든 경오자는 당시에 "책의 인쇄에 으뜸인 활자"로 평가됐지만 불과 6년(1450~1456년)만 사용됐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뒤 안평대군이 썼다는 이유로 녹여버리고 새 활자를 만든 탓이다. 경오자로 인쇄된 서적은 국내외에 6종만 남아 있다.

최다 인명이 기록된 19세기 중엽의 '만성보(萬姓譜·온갖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 모은 책)' 40책 역시 발견됐다. 조선 후기에 작성됐으며 딸과 사위까지 포함했다. 조사에 참여한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연구실장은 "기존 만성보보다 3, 4배 방대한 분량"이라며 "과거 합격 이력, 관직, 혼맥 등 조선 지배 세력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는 최대 '인물 बैं크'다"고 말했다.

세종의 일곱 번째 아들 평원대군(平原大君·1427~1445)의 장서인 '근행지당(謹行之堂)'이 찍힌 '대학연의(大學衍義)'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정우봉 교수는 "한중연의 이 사업은 10년간 진행됐으나 연장안이 정부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 6월을 마지막으로 해외 조사도 잠정 중단된다"며 "한국학 연구의 보고(寶庫)인 해외 자료 조사가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자함(三字銜)을 띠고 작성한 교서

삼자함(三字銜) : 조선 시대, 종이품의 관원이 퇴직한 뒤에 전직 관원을 예우하여 특별히 내린 벼슬

1604년 5월, 시강원 문학 겸 춘추관 기주관 지제교가 되었다. 1605년에는 선무원 종공신록에 이름이 올랐다. 그런데 오봉집에 「선무공신 이광악에게 내리는 교서[教宣武功臣李光岳書]」와 「호성공신 고희에게 내리는 교서[教扈聖功臣高曦書]」, 「오련에게 내리는 교서[教吳連書]」가 실려 있다. 이것들은 모두 1604년 신지제가 지제교의 삼자함三字銜을 띠고 왕명에 따라 작성한 교서들이다.

1592년 4월에 왜적이부산포 동래성을 함락한 후 20여 일 만에 한양을 공격해오자 선조는 의주로 도망했다. 난이 끝난 후 1604년에 선조는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웠거나 명나라에병량주청사신 兵糧奏請使臣으로 가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선무공신宣武功臣의 호를 내리고, 자신을 의주까지호종한 공을 세운 86명에게 3등급의 호성공신扈聖功臣의 호를내렸다. 선무공신은 18인을 3등(1등 3명, 2등 5명, 3등 10명)으로 구분했고, 호성공신은 86명을 3등급(1등 2명, 2등 31명, 3등 53명)으로 구분했다.

이광악李光岳(1557~1608)의 본관은 광주廣州로, 1584년 무과에 급제한 뒤 전라도 병마절도사·훈련원 도정 등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김시민金時敏과 합세하여 성을 사수했으며, 김시민이적탄에 맞아 쓰러지자 그를 대신하여 총지휘관으로싸워 대승을 거두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 1604년경기방어사가 되어 선무공신 3등으로 광평군廣平君에 봉해졌다. 시호는충장忠壯이다.

선조를 호위하던 부안 출신의 선전관 고희高曦(1560~1615)는선조를 등에 업고 임진강·대동강·청천강을 건넜는데, 적을 만나 한쪽 귀를 잃었다. 선조는 1604년에 고희를 호성공신 3등급인 충근정량호성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에올리고 영성군瀛城君에봉했으며, 정2품 자헌대부 호조 판서겸 지의금부사로 증직하고 사방 10리 땅을 하사했다. 그부친 고사렴高士濂은 제원군濟原君에 봉하고 병조 판서를 추증했다. 교서는 신지제가 지었고, 글씨는 석봉 한호가 썼다. 고희는 본관이 제주로, 49세 때 귀향하여 56세에 졸했다. 고희의 아들 홍건弘建은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에 공을 세워 종2품가선대부에 오르고, 홍건의 양자 두황斗煌은 알성무과에 급제하여 동지중추부사로 영해군瀛海君에 봉해졌다. 1625년 부안군 하서면 석불산 계곡 청호리에 3대를 향사하는 부조묘堂不祧廟堂인효충사效忠祠가 건립되었다.

1604년 호성공신 교서는 국내에 9개가남아 있다. 문신과 무신 8명, 의관 1명의 것이다. 2018년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소장의 「오련吳連 공신교서」가 처음 발견되었다. 오련은 본디 양민으로 부여扶餘의 정병正兵이 되어 이마理馬 즉 사복시司僕寺의잡직이었는데, 호성공신 제3등급인 충근정량호성공신에 오르고석성군石城君에봉해졌다. 본관은 낙안樂安이다. 이 교서도 신지제가작성하고 한호의 글씨로 썼다.

신지제가 작성한 교서에는 “임금을 존경하고 윗사람을 친근히대하는 마음은 귀천에 차이가 없으니 노고에 보답하고 공로에 답하는 은전에 어찌 경중을 구별하겠는가? 이에법도에 따라 특별한 예우를 보이노라.....지난 날 동쪽 오랑캐가 흉포

하게 나라를 유린하여 어가가 허둥지둥서쪽으로 피신했을 때에 크고 작은 고을이 모두 붕괴되니 조정 안팎의 신하와 백성들이 대부분 짐승이 달아나듯 새가 숨어 버리듯 했는데, 너는 하례下隸(낮은 신분)로서임금을 뒤로하지 않고 어가와 세자의 출정에 말고삐를 짊어지는 공을 이루었고 험난한 일을 두루 겪으면서도 시종 일관 온 마음으로 마부의 역할을 다했으니”라고 하여 오련의 공적을 분명히 밝혔다. 용사호종록龍蛇扈從錄에 보면, 오련은 “부여扶餘의 정병正兵으로서 어가를 따랐다.”라고 했다.

오련은 석성군에 봉해짐으로써 낙안 오씨 석성군파의 시조가 됐다. 한편제천의병전시관에 「이공기李公圻 호성공신 교서」가 있는데, 이것도 1604년에 신지제가 짓고 한호가쓴 것이다. 이공기는 선조의 어의御醫로, 호성공신 3등에 오르고 한계군에 봉해졌다. 교서는 가로 198cm 세로 39cm 크기의 대나무실 종이로 제작된 옥축玉軸 형태로,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도화동) 한계공영당에 보관되어 오다가 2008년에 제천시에 기증되었다. 교서의앞부분은 소실되었다.